

월요광장



김형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위원장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지 벌써 30년쯤 되어 간다. 그 세월을 그래프로 그리면 점진적인 하향곡선 하나...

인문학은 이제 치유, 힐링, 웰빙 같은 신종 접두어를 붙이지 않고서는 그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당할...

상황이 일반한 것은 작년 10월이었다. 멀리 스웨덴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날아들었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완도 금당, 천당 밑에 금당도에서 처음 마주친 것은 갑오징어도 전북도 아니었다. 산중 도라지꽃이었다.

그때, 배낭을 맨 등산객이 무더기로 하산하고 있었다. 섬 구경은 줄 일았는데 약초꾼이 많았다.

봄이 되면 나도 산에 간다. 가만히 있고 싶는데 산이 자꾸 나를 부른다. 조붓한 오솔길을 걷다 보면 꽃만 만나는 게 아니다.

간간이 꿩래순도 꺾어 먹는다. 취순이나 청미래덩굴 새순이 간직한 에너지를 먹고 앞에 스민 숲의 정령들을...

기고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드디어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최종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둘째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됐고...

책을 읽지 않아서, 그는...

권이 팔려나갔고 덕분에 나 역시 일평생 가장 바쁜 두 달을 보냈다. 인터뷰, 기사,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인문학 부흥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인문도시광주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물론 나 역시 바보는 아니어서 한 권의 책이나 한 번의 사건이 세상을 일거에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식의 낙관은 거절한다.

그러나 나는 또 얼마간 바보이기도 한데 이런 사건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은 변할 거란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 이제 한 차례 기쁜 소동을 겪었으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런 걸 가르쳐서 미안합니다”만”으로 시작하는 쓸모없고 끈대 같은 이야기들을 즐찾 늘어놓을 작정이다.

가만한바람

순 몇 줘도 넣어준다.

며칠 전이었다. 하산하는데 경찰차가 나를 막아섰다. 놀라 주춤 했는데 왜 내 배낭을 뚫다 가로채더니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진다.

처음 보는 중실한 사내였다. 눈썹리도 매섭고 화를 낸 표정이 얼음보다 차가웠다. 산에 단 1초도 살지 않은 사람처럼 난폭했다.

나는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 있는 산도 내 친구, 계곡도 내 친구, 나무도 내 친구라고 했다.

그만 변명은 필요 없다고 그가 말했다. 재작년에 이 산을 샀기 때문에 이 산의 것은 자기 것이란다.

우습지만 참았다. 그리고 산이 내어준 곳으로 가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산소 옆의 양지바른 데서 자란 것이었다.

섬이나 무인도까지 가서 도라지나 하수오 등을 무더기로 캐서 파는 일은 옳지 않다. 어느 산이나 주인이 있고 소중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이 땅을 사는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돼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됐다. 이로써 내가 나이 들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때가 되면 연금을 실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를 상환이 과연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언론 기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예시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선으로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가입자에게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를 반영해 예상 연금액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것이다.

읽지 않아서 그리되었다. 한 번쯤 설문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인)문학적 독서가 시민의식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계 조사” 같은.....

물론 나 역시 바보는 아니어서 한 권의 책이나 한 번의 사건이 세상을 일거에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식의 낙관은 거절한다.

그러나 나는 또 얼마간 바보이기도 한데 이런 사건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은 변할 거란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 이제 한 차례 기쁜 소동을 겪었으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런 걸 가르쳐서 미안합니다”만”으로 시작하는 쓸모없고 끈대 같은 이야기들을 즐찾 늘어놓을 작정이다.

같은 것도 주인의 것이란 말인가.

보릿고개 시절, 산짐승 들짐승이 먹고 난 것도 우리는 가까이 나눠 먹었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햇벌과 바람과 이슬이 키운 것조차 자기 소유라고 하지는 않았다.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 생각난다. 어떻게 이 공기와 구름, 그리고 산을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저절로 난 풀 한 포기조차 법이 개입하여 그 소유가 정해진다면서 나는 그 법을 신뢰하고 싶지 않다.

그 땅을 누구에게나 샀듯이 또 누군가에게 이적될 것이다. 잠시 기대어 살고 쓰다 갈 뿐이다. 그곳에서 자라는 꽃들과 풀, 나무들의 것이고 거기서 식량을 구하고 보금 자리를 텃 토끼나 새들의 것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자기 소유라고 독식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은 씨가 마르도록 채취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넉넉한 자연처럼 사람들도 좀 능글하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입자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방송·라디오·신문·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해 설명회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다양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아보려는 관심을 갖지 않고 신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며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제도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 크레딧 제도 등 여러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실행할 예정이다.

社說

정권교체 열망에 어대명으로 끝난 민주당 경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어대명’ (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 (90%대 득표율은 이재명)을 실현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까지 3일간 이어진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합산 결과 88.6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영남권 (90.18%)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충청권 (88.15%)을 넘어선 득표율로 누적 득표율은 89.04%를 기록했다.

최근 당양근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패하는 등 호남 민심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높은 득표율로 우려를 불식시켰다.

(70.88%)보다는 낮았지만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합산 투표율은 53.67%로 지난 20대 대선 광주·전남 56.2%, 전북 53.6%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권교체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민주당 역사상 최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배양하지 않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결과를 경허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정권 교체라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전남 외국인근로자 인권 종합대책 마련하길

미국 정부가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섰다고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전남 수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한국 내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태평염전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수산업 분야에 한정돼 있다.

전남에는 감·전복 약식장에만 6개 시군에 1853명, 농축산업 분야에는 34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어

는 곳에서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조그마한 인권 유린이라도 적발될 경우 전남지역 수산업은 물론 농축산물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전남도는 태평염전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수산업 분야에 한정돼 있다.

無等鼓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은 성모 마리아, 사도와 같은 성인들이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다.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줄곧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일부 교황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부패를 일삼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은 성모 마리아, 사도와 같은 성인들이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다.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줄곧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일부 교황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부패를 일삼기도 했다.

레오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들이 공동 집전했다.

최초의 남미 출신이자 예수회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줄곧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일부 교황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부패를 일삼기도 했다.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은 성모 마리아, 사도와 같은 성인들이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다.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줄곧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일부 교황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부패를 일삼기도 했다.

Table with header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date, issue number, and contact details.